

# 여름철 닭질병에 유의합시다!

김 종 엽  
<안양가축위생연구소>

활동과 성장에 적합하였던 봄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고온과 다습의 여름철이 닥쳐왔다.

생리적으로 추위보다 더위에 더욱 약한 닭의 피로, 권태,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내외부 기생충의 발생 등에 대해 어느 계절보다도 사양과 환경위생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변질 또는 부패된 사료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의 발생, 곰팡이성 폐염, 연변문제 등이 병행하여 다발할 가능성이 많아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걸잡을 수 없는 사태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기 쉬운 하찮은 일들도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고 시급한 수의숙제 사양관리세 힘쓰도록 하여야 한다.

여름철이 되면 각종 미생물의 번식 조건이 유리하게 되고 침입 조건도 결합할때인 만큼 하절기 질병의 만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면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 구충제의 투여, 백신의 접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리한 악조건일수록 지획된 위생관리와 백신접종이 역행 되어야 한다.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화 하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개인 개인의 철저한 방역은 물론 넓게 전국적인 공동방역대책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양계가들은 넓은 시야로 방역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방역의 근본은 질병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방법에는 크게 보아 위생적인 관리와 백신접종에 의한 예방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우선 그 질병을 알아야 함으로 여기서는 여름철에 다발하는 계두, 콕시듐증, 곰팡이성 폐

염, 백혈병, 마팍병, 류코사이토준병, 내부기생충, 연변문제 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여 보기로 한다.

## 1. 계 두

**원 인** : 상피친화성 바이러스로 계두바이러스에 의한.

피부형과 점막형의 두 종류가 있으나 하절기에 다발하는 피부형에 대해 기술함.

**감염경로** : 모기에 의한 감염.

창상감염 즉 닭의 체표면에 상처를 통한 병원균의 침입.

**증 상** : 녀슬, 옥수, 눈과 입주빈등 털없는 피부에 흑갈색의 사마귀 모양의 두창 발생 비루증상과 눈꺼풀이 붓고, 눈꺼풀 속에 진락성 물질이 들어 있을 때도 있음.

**예 방** : 철저한 백신접종의 시행.

백신은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접종. 부로유폴리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생추때 접종.

**관 리** : 도충기나 약제살포로 모기박멸. 닭의 창상주의.

계사의 철저한 소독. 백신접종시 백신이 주위에 묻지 않게 주의.

접종에 사용한 기구는 소독, 빈 백신병은 소각. 병체의 제거.

## 2. 콕시듐증

**원 인** : 콕시디아 원충중 8종의 아이베리아에 의한.

**감염경로** : 성숙한 오시스트를 닭이 먹어 경구 감염.

**증상** : 아이메리아의 종류에 따라 임상증상 및 해부소견상 차이가 많음.

특히 병원성이 강한 것은 아이메리아 테네라, 아이메리아 네카트릭스, 아이메리아 부루네티 등이며 이의 특징적인 임상증상과 병리해부 소견은, 맹장 및 소장애 출혈과 혈변. 소장 전부에 회색 또는 흰색 반점의 출현.

소장내에서 백색화된 점액 인정.

**예 방** : 예방약품을 사료에 섞어 먹임.  
 설파퀴녹살린 0.015%~0.0175%,  
 후라졸리돈 0.006%,  
 나이카바진 0.0125%,  
 죄렌 및 엠프로툼. 부로일터에 0.0125%  
 산란용은 산란 수주일 전까지 0.004~0.008%,

**관 리** : 계사 및 운동장의 소독철저 (끓는물에 탄 3% 크레졸 비누액 또는 2% 가성소다액), 오시스트가 들어 있는 계분을 1~2일 발효시켜 오시스트를 구제. 병아리와 성계의 분리사육. 입추전 계사의 청결 및 철저한 소독. 계사 출입시 신발소독 철저.

### 3. 곰팡이성 폐염.

**원 인** : 아스퍼질러스속의 곰팡이에 기인.

**감염경로** : 사료, 깔짚등에 생긴 곰팡이 아포 흡입에 의한 감염.

계란내에 침입한 곰팡이에 의하여 병아리에 감염된 경우도 있음.

**증상** : 호흡곤란, 또는 호흡축박. 일령의 증가에 따라 경과 완만. 식욕부진으로 허약해지며 설사나 구토를 수반. 호흡기관 및 부속 실질장기에 황색의 결절.

순막(瞬膜)하에 황색 건락성 물질의 발현.

폐에 좁쌀크기의 회백색 결절이 만연, 폐의 정상부위와 명백히 구분됨.

**예 방** : 소독, 청결 및 환기로 곰팡이 발생을 방지. (사용한 기구나 계사를 1% 유산동 용액으로 소독.)

오염된 계사의 소독제로는 m<sup>2</sup>당 포름알데하이드나 1% 가성소다 용액 1ℓ를 1시간 처리.

부란기내의 소독으로는 펜타클로르페놀 소디움의 침수나 분무. m<sup>2</sup>당 40% 홀마린과 3g의 과망간산가리로 훈증하여 30분 처리.

**관 리** : 계사내의 습기제거. 사료와 깔짚에 곰팡이가 낀 것은 조각 처리. 병계를 제거.

### 4. 백혈병

**원 인** : RNA 믹소바이러스에 기인된 것으로 봄

**감염경로** : 주로 계란을 통하여 전염. 닭의 배설물, 공기, 사료, 물, 또는 사람에게 의한 전파.

흡혈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도 가능.

**증상** : 벼슬이 창백해지며 식욕부진 및 설사 감염계의 대부분이 간장의 비대와 한계가 명확한 회색의 종양이 생김.

비장이 종대하여 회갈색을 띤.

**예 방** : 백혈병 발생이 없는 양계장에서 계란 구입.

저항성 높은 품종의 개발.

특이항원을 닭에게 주입시켜 체내에 반응력을 부여할 특이항원의 개발

**관 리** : 병아리와 성계의 분리사육—최소한 90일.

병계와 보균계를 검출 제거.

계사의 위생적인 사양관리.

### 5. 마렉병

**원 인 :** 허피스 바이러스에 기인.

**감염경로 :** 병계나 보균계와의 직접 또는 간접 전염.

병계 및 보균계의 배설물이 호흡기 계통을 통해 전염. (닭 몸의 비듬에 포함된 병원체가 먼지와 함께 호흡기 계통으로 전염되거나 눈의 결막을 통해 전염.)

사료나 음수에 오염 됐을 때는 소화기 계통을 통해 전염.

공기전염.

야생조류, 가축, 쥐, 사람 등 기계적 전파.

**증 상 :** 10주령 이전에 나타나는 중앙형과 10주령 이후에 나타나는 신경형의 두 가지가 있음.

전자는 주로 간, 신장, 비장, 생식기, 심장등 장기에 임파구의 이상 증식의 증양을 형성.

폐사율이 높으며 특징.

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신경, 피부염증상 병변을 인정하며 작(脚) 마비로 다리를 절름거리림.

날개를 밑으로 떨어 뜨림.

한쪽 다리를 뒤로 다른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아있는 모습이 전형적임.

**예 방 :** 백신접종이 절대 필수적. 백신은 부화후 24시간내 접종.

병아리 구입시 믿을 수 있는데서 저항력이 강하고 감수성이 없는 품종을 선택.

**관 리 :** 감염경로에 대한 대책으로 계사 내의 오염공기의 농축을 피하기 위해 환기를 원활히 할 것.

일광을 이용한 자외선 소독.

접촉감염의 예방을 위해 밀접사육을 금함.

기계적 전파를 금하기 위해 외부의 출입통제.

절족동물, 쥐의 박멸

### 6. 류코사이토준병

**원 인 :** 원충인 류사이토준 카우레리가 병원체이며 말라리아 원충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감염경로 :** 병계를 흡혈한 닭겨모기의 체내에 포자가 형성, 이러한 닭겨모기가 건강계를 흡혈함으로써 닭체내에 포자가 들어가 감염.

**증 상 :** 객혈 및 급사.

피하 또는 근육내 출혈,

출혈부위의 피부는 암자색.

눈까름. 주변조직에 출혈.

식욕부진, 낙번, 빈혈로 쇠약하여 성체는 산란의 감소 또는 정지 부강내에 내출혈.

비장의 종대 및 간의 비대.

**예 방 :** 사료에 직접 후라조리돈 등을 사료톤당 100~200g 첨가 급여. 설파제를 사료 톤당 25~50g 첨가 격수 급여.

피리메타민제 0.0001% (사료 톤당 1g) 사용.

**관 리 :** 닭겨모기의 서식처인 고인물, 잡초를 없애고 계사내외의 충분한 소독.

병계 및 회부계의 제거.

### 7. 내부기생충

**원 인 :** 내부기생충에는 회충, 명장충, 모세선충등으로 이중 회충에 의한 피해가 제일 심함.

**감염경로 :** 변에 섞여나온 충란은 외부에서 자활할 충분한 영양분을 갖추고 있어 곧 감염성 충란으로 발전, 닭이 이를 섭식함으로써 체내에서 부화 성장하여 소장 에 정착 피해를 줌.

**증 상 :** 성장이 지연, 체중감소.

산란율이 저하, 난중 증가가 더디고,

난각표면이 나빠짐.  
 쇠약해지고 설사를하며 병에 대한 저항  
 력의 약화.  
 빈혈증으로 비늘과 얼굴이 창백. 흉선  
 이 위축.  
 창자에 구멍과 출혈증상.  
 비장 및 간의 종대.

**예 방:** 구충제 투여. (피페라진 제제를 체중  
 kg당 170mg, 페노다시아진은 중추에  
 0.3g, 대추에 0.5g, 성계에 1.0g을 사  
 료에 섞어 먹임. 하이그르마이신 B를  
 사료 톤당 12mg 혼합하여 계속 투여.)  
 케이지를 옮기기 전에 20일 간격으로  
 2~3회 구충.

옮긴후는 적어도 2~3 개월마다 1회.

**관 리:** 평사에서 깔짚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  
 지.

한번 사용한 깔짚은 즉시 소각. 병아리  
 와 노계와의 접촉금지. 밀사를 피하고  
 계사 바닥에 똥받이 설치.

8. 연변문제

**원 인:** 고온과 습도상승으로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여 체온조절 수단으로 함.

이때 호흡 및 배변을 통해 체열을 발산  
 연변화 됨.

**증 상:** 정상계분의 수분함량(78%)에 비해  
 80% 이상 (86% 까지) 함유.

**예방과 관리:** 음수소독(계면활성제 100백)이  
 연변예방에 효과적.

음수의 량을 줄이거나 급수시간을 제한  
 (1일 2회 2~3시간)

배설물에 대한 처리로 건조제 (소석회,  
 유산망간, 유산철 등을 주성분으로 하  
 는 약제) 살포.

건조제분을 살포하여 수분을 흡수케함.  
 계사의 구조를 사내 통풍 환기가 잘 되  
 도록 건축.



이제부터는 배변과 함께

◎호흡기병(CRD)특효약  
 ◎빠다리병(포노상구면증)특효약

# 청량리가축약품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2동597의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2780

